Morning Meeting Notes

2023-06-09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중국주식] 중국의 변화와 미래 - 양안관계/국제관계/산업전략 점검

New Issue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 타고 상승 마감...나스닥 1.02%↑
뉴욕채권, 실업보험 청구 증가 주목...미 국채가 상승
국제유가, 美·이란 석유수출협상 타결 근접 소문에 하락...WTI 1.71%↓

New Publication

[중국주식] 중국의 변화와 미래 - 양안관계/국제관계/산업전략 점검(2023-06-09)
[퀀트/글로벌 ETF] 2023년 6월 퀀트/글로벌 ETF 전략 - Summer Rally의 추억(2023-06-07)
[자동차/모빌리티] 2023년 하반기 산업 전망 - 오만과 편견,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세 가지 진실(2023-05-30)
[반도체 EUV] 여의도통신사의 EUV 밸류체인과 IT 소재 업체 탐방기(2023-05-26)
[정유화학/2차전지] 일본기업 탐방기: 전고체전지부터 탄소섬유까지(2023-05-26)
[금융] 2023년 하반기 금융업 전망: 예실차(2023-05-25)
[제약/바이오] 2023년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다시 만난 세계: 자가면역질환 새로운 TNF와 FcRn으로 대격변(2023-05-23)
[크레딧] 2023년 하반기 크레딧 전망: 기대와 우려 사이(2023-05-22)
[건설] 2023 하반기 건설업 전망: 반전은 늘 후반부에(2023-05-19)
[채권전략] 신(新)냉전 체제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 양상 (2023-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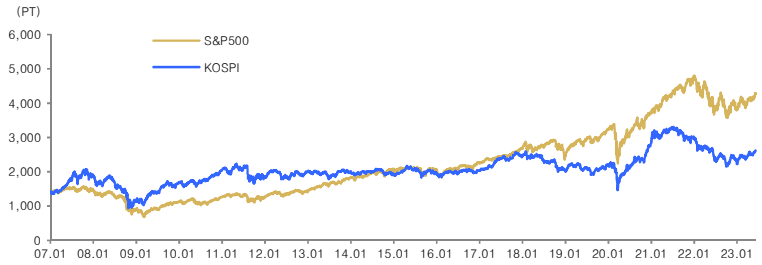
Rating, Target Price Changes

SK하이닉스	BUY	105,000 원 ▷	BUY	127,000 원	(2023-06-05)
한국가스공사	BUY	47,000 원 ▷	BUY	35,000 원	(2023-05-26)
삼성생명	BUY	83,000 원 ▷	BUY	91,000 원	(2023-05-25)
한화생명	BUY	3,300 원 ▷	BUY	4,000 원	(2023-05-25)
동양생명	BUY	6,900 원 ▷	BUY	7,300 원	(2023-05-25)
삼성화재	BUY	270,000 원 ▷	BUY	350,000 원	(2023-05-25)
DB손해보험	BUY	102,000 원 ▷	BUY	136,000 원	(2023-05-25)
현대해상	BUY	44,000 원 ▷	BUY	69,000 원	(2023-05-25)
한화손해보험	BUY	6,000 원 ▷	BUY	7,900 원	(2023-05-25)
한국전력	M.PERFORM	22,000 원 ▷	M.PERFORM	21,000 원	(2023-05-23)
한올바이오파마	BUY	29,000 원 ▷	BUY	38,000 원	(2023-05-23)
셀트리온	신규재편입	▷	BUY	210,000 원	(2023-05-23)
대우건설	신규편입	▷	BUY	5,500 원	(2023-05-19)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코스모신소재	31,219	SK하이닉스	195,718
두산에너빌리티	30,808	메리츠금융지주	65,599
삼성전자우	18,665	삼성전자	64,951
삼성전자	16,027	고려아연	47,742
OCI홀딩스	13,030	한화솔루션	45,347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SK하이닉스	-73,063	LG생활건강	-42,200
LG에너지솔루션	-56,965	현대차	-38,783
에코프로비엠	-36,024	기아	-37,841
금양	-34,859	카카오페이	-37,752
에코프로	-28,890	엔씨소프트	-32,287

KOSPI, S&P 추이



국내시장 동향	종가	D-1(%)	D-20(%)
KOSPI	2,610.85	-0.18	+4.81
대형주	2,608.42	-0.30	+5.47
중형주	2,786.71	+0.64	+1.56
소형주	2,388.09	-0.34	+1.55
KOSDAQ	876.13	-0.52	+6.26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개인 (억원)	외국인 (억원)	기관 (억원)
순매수	664	-3,838	3,186
누적순매수(D-20)	-42,370	34,795	8,614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단위 :억 원)	203,675	189,032	167,486

업종별 지수	종가	D-1(%)	D-20(%)
건설	79.42	+0.34	+1.08
금융	364.17	-0.10	+1.31
운수장비	2,117.95	+0.02	-2.64
유통	339.48	+1.10	+1.82
음식료	3,743.27	-0.22	-0.08
의약품	13,478.69	-0.36	+0.53
전기전자	27,867.53	-0.35	+11.40
철강금속	5,367.58	+0.14	+3.11
화학	5,763.19	-0.27	+3.97
유틸리티	646.13	+0.06	-1.51
통신	367.14	-0.22	-1.71

해외시장 동향	종가	D-1(%)	D-20(%)
S&P500	4,293.93	+0.62	+3.95
NASDAQ	13,238.52	+1.02	+7.38
일본	31,641.27	-0.85	+8.63
중국	3,213.59	+0.50	-2.90
독일	15,960.56	+0.00	+0.79

주요 금리 동향	종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3.54	+7.20	+32.30
국고채 (10년)	3.63	+11.00	+34.00
은행채AAA (3년)	4.09	+6.90	+34.80
미국국채 (2년)	4.53	-2.90	+62.18
미국국채 (10년)	3.72	-7.73	+33.09

환율 동향	종가	D-1(%)	D-20(%)
원/달러	1,303.70	-0.01	-1.70
원/백 엔	938.43	+0.83	-4.80
원/위안	183.33	+0.24	-3.96
달러/유로	1.08	+0.78	-1.21
위안/달러	7.11	-0.25	+2.34
엔/달러	138.92	-0.83	+3.25
Dollar Index	103.32	-0.77	+1.21

상품시장 동향	종가	D-1(%)	D-20(%)
WTI (usd/barrel)	71.29	-1.71	+0.59
금 (usd/oz)	1,978.60	+1.03	-2.07
BDI	1,020.00	+0.39	-37.80
천연가스(NYMEX)	2.35	+0.99	+7.40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Industry Report Overseas
2023. 06. 09

중국의 변화와 미래

양안관계 / 국제관계 / 산업전략 점검

글로벌리서치팀
Analyst 여태경
02) 6106-2750
TK.yeo@hmsec.com

RA 장문영
02) 3787-2069
ansdud@hmsec.com

[양안관계 정리] 친구인가 적인가?

①양안 교류의 시작: 국공 내전으로 양분된 중국과 대만은 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 합의로 다시 교류가 시작됨. '하나의 중국'이란 각자 중심적 사고지만 중국과 대만은 통일해야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는 것으로 이 합의를 '92공식' 이라고 함. '92공식' 도출 후 1993년 '왕구회담'을 통해 양안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

②중국에게 대만이란? 중국은 헌법 서문에 대만과의 통일을 중국 인민 전체의 신성한 책무로 규정해 대만과의 통일은 당연하게 인식. 중국은 14개 국가와 영토를 인접하며 일부 지역은 분쟁 지역임. 어느 한 곳도 문제 발생은 용납 불가. 대만이 독립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기다리며 평화적 통일을 희망

③대만에게 중국이란? 대만은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고령층의 감소와 대만에서 태어나 성장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증가하며 통일에 대한 의지는 낮아지는 중. 하지만, 독립 시 중국의 침공이 우려되는 만큼 현재 상태에 만족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음. 단, 양대 정당의 정치색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찬반으로 구분

중국과 대만의 경제 관계: 대만의 최대 교역국 중국

①양안의 교류 초기 대만에 있어 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전체 수/출입의 2.5%수준에 불과했지만, 2022년 기준 수출 중 중국 비중은 21%, 수입 중 중국 비중은 18%로 각각 1위를 차지

②양안 교역에서 대만의 무역수지는 지속 증가: 1991년 3천만달러에서 2022년 15.6억 달러까지 급증

③대만은 양안의 교류가 시작된 후 지속적인 투자를 하며 중국 경제와 산업성장에 기여함

④대만 기업들은 초기 시장을 개척해 중국기업과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음. 실제 홍콩증시에 상장된 대만기업 강스푸홀딩스와 왕왕식품은 중국의 음식료 분야 M/S 1위이고 ASUS는 PC시장 Top5의 지위 보유

양안 관계에 강력한 제3자 미국: 중국견제의 첨병 대만

①미국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연결해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대만이 필요

②중국과의 지리적, 경제적 협력과 별개로 중국과의 군사력에서 열세인 대만은 미국과의 안보적 협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 수입 상위 10위권 국가로 중요한 군수물자 구매국가임. 특히, 양안관계가 갈등이 고조될수록 대만의 무기 구매력은 높음

③미국은 반도체 강국인 대만과의 협력과 동시에 중국 기술 규제 첨병으로 활용

양안 관계 전망: 2가지 시나리오

①러-우 전쟁이후 대만 내부적으로 중국과의 전쟁 발생 시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은 약해짐

②양안 간에 단기간 전쟁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믿고 절반에 가까운 47%가 미국 중국 사이 균형을 희망

③중국, 대만 모두 양안의 전쟁을 전혀 원치 않아 대만이 독립만 선언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침공 가능성 희박

④대만 사람들은 독립을 지지하는 민진당, 통일을 지지하는 중국국민당, 제3지대 대만민중당 후보 중 선거에서 현안을 보고 선택할 것이며 1)현재 여당인 민진당 선택 시 양안관계 갈등은 지속 2)정권 교체시 양안관계는 개선 기대. 단,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미국의 중국 규제에 대만 동참은 지속될 것

중국의 대외 관계 변화 전망 그리고, 산업의 변화

①중국은 기술 규제를 지속할 미국과 관계 개선에 의미를 두지 않고, 새로운 대외 관계 형성 노력 중

②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으로 중동입지 강화, 중앙아시아 5개국과 협력 강화, 룰라의 브라질과 남미국가들 그리고 새로운 Brics와 관계 강화, RCEP로 ASEAN국가들과 교역 확대 기대

③경제/산업 관련 정책은 각 산업의 자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1)국영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2)핵심산업의 국산화에 집중, 3)소득 저층 인민 지원 정책으로 중국내 자국 브랜드 대중상품 시장 성장 기대

④중국 산업/기업 투자는 중국의 대외관계, 산업형성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투자 대상도 정부 정책(공기업 육성,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산화)의 수혜 분야에 집중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